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신 문 수 · 양 현 권 · 김 진 완
(서울대학교)

Shin, Moon-su., Yang, Hyun-Kwon., & Kim, Jin-Wan. (1998). Needs assessment of EFL learners: A preliminary study.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 1-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feasibility of a new direction of EFL learner needs assessment in Korea. This paper relates theoretical concepts and methodological frameworks in needs assessment in general to the particular concern with needs assessment in TEFL. The paper also discusses a new direction of the needs assessment in terms of the "learner-centered" system, the "felt needs" type, the "process-oriented" interpretation, and the "democratic" approach.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영어는 이제 단순히 지적 탐구나 문화적 교양을 기르기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화·개방화·정보화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영어는 개인이나 집단 더 나아가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고 있다.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의 영어 학습열의 고조, 이에 부응한 사설 영어 교육 기관의 급격한 증가, 최근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의 실시 등에서 영어의 이같은 사회적 효용성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본 연구를 위해 조언과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었던 황적륜, 최영자, 김현진 및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의 활용이 이처럼 나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효과적인 영어 습득의 문제는 초미의 교육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 새로운 영어교수법 이론의 소개, 이에 입각한 각종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첨단 교육 기자재의 도입, 인터넷을 비롯한 최신 정보 매체의 활용, 교육과정의 개편과 정비 등은 그러한 현실적 요구의 소산이다.

기존 영어 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대부분 교육 공급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모든 학습이 그렇듯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은 학습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자의 배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능력, 학습 동기, 목표 등을 분명히 파악하여 그에 입각한 적절한 교수 활동이 이루어질 때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와 좋은 교재, 그리고 완벽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필요 욕구와 동떨어진 교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학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영어 교육은 무엇을(what), 어떻게(how) 가르칠 것인가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누가(who), 무슨 목적으로(why)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 결과 영어 학습자의 능력이나 필요 욕구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교과 과정에 따라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영어 교육이 우리의 학습 현장을 지배하였다.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보다 효과적인 영어 학습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학습자의 의사 소통 욕구를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거기에 합당한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을 찾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 운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어 교육은 진일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의 효율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영어 교육 활동 내부의 실천적 압력일 뿐만 아니라 보다 개방화되고 다원화된 오늘의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syllabus)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선결 요소인 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이론 정립과 효과적인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에 있다. 특히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학제적

이고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와 관련된 관점에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필요욕구 조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필요욕구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정립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도구를 모색하며 합리적인 분석방법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은 주로 언어기능 자체에 대한 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선결 요소인 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에 대한 세심한 연구에는 소홀히 해왔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 영어교육은 대학이나 학과 특성을 고려치 않는 획일적인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국어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 교과과정이나 교수요목을 설계하는데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요건으로 주창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서의 영어 상황인 국내에서는 지나치게 언어기능에만 관심을 두고 소위 ESP 및 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와 관련된 영어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제적이고 ESP 및 EAP와 관련된 관점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필요욕구를 분석하는 이론적 근거 및 조사도구와 분석방법을 연구하여, 현 영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영어교육의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Witkin(1984)에 의하면, 필요욕구 분석은 본래 회사, 학교, 병원, 혹은 정부 기관과 같은 조직체가 시간, 돈, 인력을 포함한 조직의 모든 유용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한국의 영어교육의 현장에서도 학습자의 필요욕구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는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통한 학습 목표의 보다 구체적 설정은 가령 어떤 자격을 갖춘 교사를 고용할 것인가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경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욕구란 현상과 기대치의 차이를 말한다(Witkin & Altschuld, 1995, p. 4). 따라서 필요욕구 분석은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필요욕구 분석은 이처럼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의 해결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점은 더욱 강화하고 단점은 보강하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적극 활용할 때 교육 공급자의 막연한 예단과 상식에 의존한 교과 운영으로 초래되는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학습자의 영어 학습 필요욕구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 모델은 어떤 경우의 영어 학습자 집단이든 그들의 학습 필요욕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보다 일반적인 분석 도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필요욕구 분석 대상으로 대학 영어 학습자를, 특히 선택한 것은 최근 대학 영어교육이 변환기를 맞이해서 종래의 독해 위주의 교양 영어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많은 대학들이 실제 생활에서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을 제고하기 위한 실용 영어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원어민 교수에 의한 강의가 늘어나고,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교과목의 개설도 종래의 회화, 작문에다 시사 영어나 스크린 영어와 같은 새로운 교과목이 첨가되는 등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같은 변화가 정작 중요한 영어 학습자의 학습 필요욕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교육 공급자에 의한 막연한 교육 필요욕구 예측과 일방적인 목표 설정에 의해 교과과정이 기획·설치·운영되고 있다. 가령 개선된 교육과정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이 날로 퇴보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대학 영어교육의 개혁은 학생들의 능력, 전공, 미래의 진로 계획 등에 입각한 영어 필요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인적 자원과 재원의 낭비를 줄여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Richards(1984)에 의하면 언어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 개발은 다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곧, 1) 필요욕구 분석의 단계, 2)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습목표의 개발의 단계, 3) 필요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교수 학습활동 선택의 단계, 4) 결과에 대한 평가의 단계가 그것이다(Richards, 1984, p. 6).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내용은 한국인 영어학습자를 위한 영어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선결요소인 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이론정립이다. 다시 말해서, 필요욕구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필요욕구 조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의 틀을 정립하는 작업이다. 이제까지의 필요욕구 분석에 대한 연구는 영어교육 분야에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한국의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내용은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학제적이고 EAP 및 ESP와 관련된 관점에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도구와 분석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범주화된 영역과 항목들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설문 문항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조사도구와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본 연구는 이러한 종류의 기초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III. 필요욕구 분석의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필요욕구 분석의 여러 측면을 이론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기초적 개념에 해당하는 필요욕구의 개념적 정의를 마련하고 그 종류를 살펴본 다음 영어학습과 결부시켜 논의한다. 다음에서는 필요욕구 분석의 개념적 정의를 마련하고 여러 종류의 필요욕구 분석의 형태를

개관한 다음, 이른바 “의사소통중심 및 학습자중심”의 영어교육 환경에서 어떠한 형태의 필요욕구 조사가 수행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영어교육에 있어서 필요욕구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필요욕구 조사의 실제로서 Witkin과 Altschuld(1995)의 3단계 접근법을 소개한다.

1. 필요욕구의 개념 및 종류

필요욕구라는 개념은 필요욕구 조사의 구체적 논의를 위한 기초로서 전제된다. 그러나, 문헌연구에는 불행히도 필요욕구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Berwick, 1989). 한편, 필요욕구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는 흔히 한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이 개념의 정의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상황의 현상(what is)과 당위성(what should be) 사이의 차이”가 전제된다는 점이다(Witkin & Altschuld, 1995). 즉, 필요욕구는 현재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황을 상정하고, 그 두 상황 사이의 차이를 비교 대조할 때 비로소 정의된다. 이를 영어학습 상황에 적용하면, 영어 학습자가 현재의 영어학습 상황과 미래의 바람직한 영어학습 상황을 상정하고 그 두 상황 사이의 차이 또는 간극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논의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Berwick(1989)은 학습 및 교육과 관련된 필요 욕구를 흔히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학습자가 감지한 필요욕구인 “감지된 필요욕구(felt needs)”와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가 파악한 필요욕구인 “파악된 필요욕구(perceived needs)”가 바로 그것이다. 이 구분은 그 기준을 필요 욕구의 발생원에 둔 것으로, 영어학습의 필요욕구를 학습자 중심의 “감지된 욕구”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 학습자의 의견과 제언은 영어교육의 여러 측면 가운데 영어의 의사소통적 차원—특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기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영어학습의 필요욕구를 교사 중심의 “파악된 욕구”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견해는 영어학습에 관련된 여러 변인 가운데 언어구조와 언어재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필요욕구를 영어학습과 직접 결부하여 파악하는 경우 관점차이로 필요욕구는 “결과 지향적(product-oriented)” 관점과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 관점의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되기도 한다(Brindley, 1989). 결과 지향적 관점에서

는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학습 목표언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바, 이 관점에서
 의 필요욕구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능력과 미래에 기대되는 언어능력에 주된
 초점을 두게 된다. 한편, 과정 지향적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학습환
 경 전반과 결부하여 파악하는 바, 이 관점에서의 필요욕구는 학습자의 언어능
 력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된 정의적·인지적 변인-동기, 기대, 학습습관-등
 에도 초점을 두게 된다.

Brindley(1989)는 “학생의 필요욕구(student needs)”를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다(<표 1> 참조). 첫째, “언어능숙도(language proficiency)” 관점인데,
 여기에서 필요욕구란 학생의 현재 언어능숙도와 희망하는 언어능숙도간의 차이
 를 말하며, 따라서 필요욕구 분석도 학습자의 이해 및 표현기능의 사용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된다. 둘째, “심리 인성적(psychological-humanistic)” 관점인데, 학습
 자의 필요욕구를 현재의 심리상태와 바람직한 심리상태간의 차이로 보고 언어
 와 관련된 필요욕구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의적이고 심리적인 필요욕구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특수목적(specific purposes)” 관점인데, 여기에서 필요
 욕구란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서 기인하는 “도구적인(instrumental)” 필요욕구이며
 학습자의 직업적 또는 학문적 목표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욕구 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필요욕구
 를 어떤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는가에 관계없이 그것이 절대적이고도 불변
 하는 기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필요욕
 구는 그 조사가 행해지는 시점에서의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속
 성상 언제나 가변적이고도 주관적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필요욕구 분석의 개념과 여러 형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요욕구란 현재의 결과와 미래의 희망하는 결과 사이의
 간극 또는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필요욕구 분석의 개념은 그러한 간극을 결
 정하고 그 차이의 성격과 원인을 찾아내며 미래의 수행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
 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itkin & Altschuld, 1995, p. 4). 넓은 의미로
 보면, 필요욕구 분석은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으나 개인적인 진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요욕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으

〈표 1〉 Comparison of Approaches to Needs Analysis

	'Language proficiency' orientation	'Psychological/humanistic' orientation	'Specific purposes' orientation
View of the learner	Learner as a language learner	Learner as a 'sentient human being' in society with the capacity to become self-directing	Learner as a language user
View of needs	Needs seen as gap between present and desired general language proficiency	Needs seen as gap between current state of awareness and state of awareness necessary for learner to become self-directing	Needs seen as gap between present language performance in a specific area and language performance required in a particular communication situation
Emphasis	Ease of administration Where the learner is at in terms of language proficiency in one or more skills Relevance of language content to learners' proficiency level	Sensitivity to adult's subjective needs Where learner is at in terms of awareness Relevance of learning content and methods to individual learning styles	Collection of detailed data on objective needs Where the learner is going in terms of language performance Relevance of language content to learners' personal goals and social roles
Educational rationale	Language learners learn more effectively in a group containing learners of a similar proficiency level. Language learners learn more effectively if program content is geared to their proficiency level.	Adults learn more effectively if they are involved in the learning process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ir past experience and present capacities should be valued and taken into account.	Language users learn more effectively if program content is relevant to their specific area of need or interest. General language proficiency is not as important as the ability to operate effectively in specific areas relevant to the learners' needs and interests.

로 개인의 필요욕구에 도움이 되는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필요욕구 분석이란 특정 필요욕구를 찾아내고 기술하며 그러한 필요욕구를 지속시키는 요인을 밝혀내며 또한 그것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위한 기준을 고안해내는 유용하고 합리적인 접근법인 것이다.

이러한 필요욕구 분석은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실체를 위하여 여러 가지 형

태로 제안되어 왔는데, Stufflebeam외 3인(1985)은 相偉분석(discrepancy analysis), 大衆중심분석(democratic analysis), 專門家중심분석(expert-centered analysis) 및 診斷분석(diagnostic analysis)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먼저, 상위분석은 그 조사의 초점을 이미 앞에서 살펴본 필요욕구의 두 형태-감지된 필요욕구와 파악된 필요욕구-사이에서 관찰되는 차이에 두는 접근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Kaufman(1972), Knowles(1970) 등에서 실제 교육에 활용되었고, Munby(1978)에서는 응용언어학 교수요목 설계에 응용되었다. 이 분석방법은 설계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분석내용을 계량화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첫째, 이 방법이 계량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힘든 변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고려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과제는 흔히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둘째, 이 분석결과 얻어진 자료들은 흔히 계량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일견 이해하기는 쉬우나, 자료 이용자들이 흔히 이 분석결과를 정성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그릇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는 것이다.

다음, 대중중심분석은 분석 대상집단의 변화 요구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상정하여 이 집단의 여론적 행태와 지향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데,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이 분석방법은 학습자중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학습자들은 그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대중중심분석은 학과목의 내용 등에 대한 필요욕구 분석을 위해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이 분석방법은 그 구체적 분석기법으로 면담이나 협의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데, 바로 이러한 까닭에 대규모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전문가중심분석은 필요욕구 분석의 기초를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여 마련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필요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교육목표 설정과 교과과정 설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대부분의 경우 언어학자 및 응용언어학자로 구성된다. 이 필요욕구 분석에서는 내용(content)보다는 언어(language) 자체가 강조되므로, 실제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학문적 체계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필요욕구 분석에 근거하여 마련된 교과과정은 그 기

초적 바탕이 학문이론적 논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활용에 있어서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바로 이러한 까닭에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진단분석은 사회복지(social services) 분야에서 처음 활용되었던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에서는 필요욕구를 “결핍(deficiency)”과 그에 기인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이 접근방법은 “생존(survival)”을 전제로 한 외국어학습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테면, 이 분석방법에서는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언어내용을 교과과정 설계의 기본으로 삼는데,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되는 교과과정은 학습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학습자에게 어떤 문제가 진정으로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것이어서, 이 분석방법은 흔히 객관성의 결여라는 제한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살펴본 필요욕구의 네 가지 분석방법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 또한 서로 다르다. 특정 과제를 위하여 어떠한 분석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해당 과제의 내용적 특징과 조사실시의 실제적 측면에 대한 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고려가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3.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영어교육에 있어서 흔히 ESP나 EAP 및 과업중심(task-based) 언어학습과 관련된 논의는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분석은 교과과정의 설계, 텍스트 선정 및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Bensch, 1996; Johns, 1991; Long & Crookes, 1992). Bensch(1996)에 의하면, 필요욕구 분석은 학습자가 학습배경과 학습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설문지, 교과목 필수사항 및 과제 등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자와 교사에 대한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학자에 따라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을 기술하는 데에 필요욕구 분석의 목적을 두거나(Johns, 1991) 혹은 학습환경 변화를 위한 근거로서 분석 결과를 이용하

는 데에 필요욕구 분석의 목적을 두는(Bensch, 1996) 등 필요욕구 분석의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학습자의 의사소통적, 언어적 필요욕구와 목표를 찾아내는 출발점으로서 필요욕구 분석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Ferris, 1998).

이제까지의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Frodesen(1995)과 Tarone(1989)처럼 학습자의 학습배경과 학습목표에 대해서 학습자를 통해 조사하거나 Johns(1981)처럼 필요 교과목에 대해서 교사를 통해 조사하는 연구가 있고, Braine(1995)과 Horowitz(1986)는 학습과제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류를 통해서, McKenna(1987)는 실제 교실현장에서 학습자의 언어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혹은 Prior(1995)처럼 학습과제와 담화 및 교실 행위에 대한 조사로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필요욕구 분석은 먼저 학습자의 목표영어 상황의 요소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EAP 및 ESP와 관련된 학습지도의 기초로 삼아 교사들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Johns, 1991).

4. 필요욕구 조사의 단계적 접근법

필요욕구 조사는 그 본질적 특성상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Witkin과 Altschuld(1995)에 의해 제안된 3단계 접근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들에 따르면, 필요욕구 조사는 조사전단계(preassessment), 조사본단계(assessment), 조사후단계(postassessment)의 3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제1단계인 조사전단계는 다분히 실지조사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행된다.

[조사전단계 활동]

- 가. 문제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과제를 찾아낸다.
- 나. 필요욕구 조사의 초점, 목적, 한계점 등을 구체화한다.
- 다. 조사하고자 하는 필요 욕구에 대해 이미 알려진 사항을 파악한다.
- 라.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추정한다.
- 바. 조사결과가 어떠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한다.

조사전단계에서는 또한 조사본단계의 설계와 운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제2단계인 조사본단계는 자료수집(data gathering)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그 주 내용을 이룬다.

[조사본단계 활동]

- 가. 조사의 범위, 한계 등을 확정한다.
- 나. 필요욕구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다. 수집된 정보와 견해에 우선 순위를 정한다.
- 라. 수집된 정보와 견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마. 모든 정보를 분석·종합한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인 조사후단계는 조사결과의 활용(utilization)을 위한 단계로서 주로 다음의 활동이 행해진다.

[조사후단계 활동]

- 가. 필요욕구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 나. 현행체제 개선을 위한 해결안을 마련한다.
- 다. 해결안을 행동에 옮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 라. 필요욕구 조사 자체에 대해 내부적인 평가를 한다.
- 마.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후단계 활동에서 얻어진 여러 결정 등은 의사결정자에게 통보되고 보다 나은 체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의 3단계 가운데, 본 논문의 논의는 주로 조사전단계에 논점을 둔다. 그 까닭은 본 논문이 “욕구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과제의 주된 목적이 필요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IV. 필요욕구 분석의 방향 및 설문지 문항의 내용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한 필요욕구 분석의 내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 모델은 차후 모든 영어 학습자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석 도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1.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방향

최근 영어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의사소통중심”과 “학습자중심”이라는 두 가지 강조점으로 상징된다. 여기서 의사소통중심이라 함은 학습과 교육의 중심을 학습 목표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 및 행위에 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종전의 언어중심 또는 구조중심의 접근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언어의 기능(function)과 내용(notion)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언어활동의 네 가지 측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특히 강조한다. 한편, 학습자중심이란 교육과 학습의 전반에 있어서 수요자로서의 학습자의 여러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효과적이고도 성공적인 학습은 학습자의 필요욕구와 배경을 철저히 파악한 바탕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 구체적 실제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필요욕구, 반응 및 의견 등을 간단없이 확인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자중심 체제는 “필요욕구 파악의 부단한 순환과정”을 전제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2>는 Brindley(1989)에 근거한 것으로, 학습자중심 체제에서의 정보 순환과정이 체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중심-학습자중심으로 특징 지워지는 최근의 영어교육의 동향을 고려한다면,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주된 방향을 다음 <표 3>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표 2〉 학습자중심 체제

평가 및 반응	←			문제의 인식
↓				↑
정보교환				학습활동
↓				↑
토론	→	협 의	→	목표설정

〈표 3〉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방향

분석체제	의사소통중심-학습자중심 체제
분석관점	“감지된 필요욕구”와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
분석방법	“대중중심분석”을 위주로 여타의 분석기법을 취사선택

2.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조사 설문지 문항의 내용

이상에서 언급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주된 방향에 적합하게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곧, 1) 학습자 자신의 배경에 관한 문항, 2)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 3) 영어의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문항, 4)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 등이 그것이다.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자신의 배경에 관한 문항

학습자 자신의 배경에 관한 문항은 학습자가 감지한 필요욕구인 “감지된 필요욕구”와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에서 개발되며, 학습자 자신의 성별, 학과, 학년 등에 관한 사항과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의 영어학습이 대학에서의 영어강좌 수강에 도움이 되는 면과 도움이 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문항도 포함된다. 이 경우 영어교재, 영어교사, 학급당 학생수, 영어교육 방법, 영어원어민 교사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유를 묻는다.

2)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은 학습자가 감지한 필요욕구인 “감지된 필요욕구”의 관점과 학습자의 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된 정의적·인지적 변인—동기, 기대, 학습습관—등에도 초점을 두는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에서 개발되며, 대학 졸업후의 진로,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 현재 학습자 자신의 영어 실력,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 영어학습을 통한 궁극적 언어기능별 수준, 내적 학습동기 유발 방법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대학 졸업후의 진로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취업과 대학원 진학 및 기타로 나누고 취업의 경우 영어 사용이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직종에 초점을 두며, 진학의 경우는 국내 대학원 진학과 영어 사용권 해외유학으로 구분하여 묻는다.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와 관련된 문항은 의사소통의 유창성, 각종 시험대비, 여가선용, 영어원서 전공서적 읽기 등의 이유를 묻고, 현재 학습자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한 문항은 전반적인 영어실력과 언어기능별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문항은 학습자가 어떤 영어학습 책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으며, 영어학습을 통한 궁극적 언어기능별 수준에 관한 문항은 청해, 회화, 작문, 독해, 문법, 어휘 등으로 나누어 최상급(영어원어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 상급(영어원어민과는 차이가 있지만 영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는 수준), 중급(영어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애로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 중하급(영어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의사소통을 그럭저럭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준) 등으로 학습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묻는다. 마지막으로 내적 학습동기 유발 방법에 대한 문항은 시사적 내용, 신문이나 잡지 학습, 문학 작품 토의, 영어학습 책략 토의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3) 영어의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문항

영어의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문항은 의사소통중심-학습자중심 체제에서의 학습자의 “감지된 필요욕구”와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에서 개발되며,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어의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과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언어기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습자가 현재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과 대학의 영어강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언어기능의 형태에 대한 문항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영어의 네 가지 언어기능이란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을 말하며, 청해 능력, 회화 능력, 작문 능력, 독해 능력, 문법 능력, 어휘 능력, 기타 능력 등으로 세분될 수도 있다. 특히 대학의 영어강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언어기능의 형태에 대한 문항에서는, 속독을 통한 독해력 향상, 효과적인 읽기 전략 훈련을 통한 독해력 향상, 듣기와 말하기, 실용문 또는 자유 영작문 쓰기, TOEFL이나 TOEIC 또는 영어로 된 각종 시험을 위한 연습, 문법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 영어권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얻기, 교재 내용의 해석 또는 번역, 시사영어(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4)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은 크게 교재의 내용적 측면, 교수 언어의 측면, 학습 매체의 측면, 교수방법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의사소통중심-학습자중심 체제에서의 학습자의 “감지된 필요욕구”와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에서 개발된다. 먼저, 교재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된 문항은 현재 사용되는 영어 교재의 특징에 대한 문항과 영어강좌의 바람직한 교재의 형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듣기/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 해석/번역 위주의 강독수업 교재, 문법에 관한 설명중심 교재, 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교재, 영작문 및 쓰기 중심 교재,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중심 교재, 시청각 자료(오디오, 비디오) 활용한 수업 교재 등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다.

교수 언어의 측면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현재 영어강좌의 수업진행에 대한 문항과 바람직한 영어강좌의 수업진행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시청각 기자재 활용을 위주로 진행되는 강좌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또한 학습 매체의 측면에 대한 문항은 서적, 시각적 자료(그림, 사진)를 포함한 서적,

청각적 자료(녹음)를 포함한 서적, 시청각 자료(video)를 포함한 서적 등에 관한 학습자의 생각을 묻는 문항이며, 교수방법의 측면과 관련된 문항은 학생중심 수업, 문법 및 언어용법에 관한 설명식 수업, 설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중심 수업, 주어진 과제 해결형 수업, 듣기/말하기 위주의 수업 등을 학습자가 바람직한 교수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과 기타 영어강좌의 적절한 수강인원 및 적절한 주당 시간 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참 고 문 헌

- Bensch, S. (1996). Needs analysis and curriculum development in EAP: An example of a critical approach. *TESOL Quarterly*, 30, 723-738.
- Berwick, R. (1989). Needs assessment in language programming: From theory to practice. In K. J. Robert (Ed.),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pp. 48-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ine, G. (1995). Writing in the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D. Belcher & G. Braine (Eds.), *Academic writing in a second language: Essays on research and pedagogy* (pp. 113-134). Norwood, NJ: Ablex.
- Brindley, G. (1989). The role of needs analysis in adult ESL programme design. In K. J. Robert (Ed.),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pp. 48-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ris, D. (1998). Students' views of academic aural/oral skills: A comparative needs analysis. *TESOL Quarterly*, 32, 289-318.
- Frodesen, J. (1995). Negotiating the syllabus: A learner-centered, interactive approach to ESL graduate writing course design. In D. Belcher & G. Braine (Eds.), *Academic writing in a second language: Essays on research and pedagogy* (pp. 331-350). Norwood, NJ: Ablex.
- Horowitz, D. M. (1986). What professors actually require: Academic tasks for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20, 445-462.
- Johns, A. M. (1981). Necessary English: A faculty survey. *TESOL Quarterly*, 15,

51-57.

- Johns, A. M. (199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Its history and contributions.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67-75). Boston: Heinle & Heinle.
- Kaufman, R. A. (1972). *Educational system plan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nowles, M. S. (197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ndragogy versus pedagogy*. New York: Association Press.
- Long, M., & Crookes, G. (1992). Three approaches to task-based syllabus design. *TESOL Quarterly*, 26, 27-56.
- McKenna, E. (1987). Preparing students to enter discourse communities in the U.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6, 187-202.
- Munby, J. (1978).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ior, P. (1995). Redefining the task: An ethnographic examination of writing and response in graduate seminars. In D. Belcher & G. Braine (Eds.), *Academic writing in a second language: Essays on research and pedagogy* (pp. 47-82). Norwood, NJ: Ablex.
- Richards, J. C. (1985). *The context of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ufflebeam, D. L., McCormick, C. H., Brinkerhoff, R. O., & Nelson, C. D. (1985). *Conducting educational needs assessments*. Boston: Kluwer-Nijhoff.
- Witkin, B. R. (1984). *Assessing needs in educational and social program: Using information to make decisions, set priorities, and allocate resources*. San Francisco: Jossey-Bass.
- Witkin, B. R., & Altschuld, J. W. (1995).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s: A practical guide*. London: Sage.